



장애·비장애 통합 연주
단체 가온 솔로이스츠
가 지난 20일 제5회 정
기연주회 'Melody
of Bliss: 기쁨의 노
래'를 서울 예술의전당
에서 개최했다.
(가온 솔로이스츠 제공)

장애·비장애 함께한 하모니... '기쁨의 노래' 울려 퍼졌다

리뷰 - 연주단체 '가온 솔로이스츠' 'Melody of Bliss'

둥~ 북소리가 울리자 현악기의 활이 일제히 움직인다. 경쾌한 울림에 피아노와 관악기가 차례차례 얹어진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함께 호흡을 맞추는데 문제는 없다. 그 자체로 봄날의 교향곡이자, 파스한 공존의 언어.

제45회 장애인의날(4월 20일),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선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쁨의 노래'가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 울려 퍼졌다. 장애·비장애 통합 연주단체 '가온 솔로이스츠'가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Melody of Bliss: 기쁨의 노래'를 선보인 자리였다. 공연은 HS효성의 협찬으로 이뤄졌다.

가온 솔로이스츠는 장애·비장애 음악가가 함께 하는 실내악 연주단체로, 지난 2021년 창단 이후 음악감독인 비올리스트 김유영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됐으며, 2년 연속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음악적으로도 결실을 맺고 있다.

김유영 음악감독은 "우리에게 이 무대는 기적과도 같은 기쁨의 순간이다. 준비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고 호흡을 맞춰가며 하나의 음악으로 어우러지는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연주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공연은 '기쁨의 노래'라는 주제처럼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로 채워졌다. 장애 연주자 15명과 비장애 연주자 7명이 어우러져 코렐리, 베토벤, 드보르작, 차이코프스키의 명곡들을 선보였다.

장애인의 날 기념 정기연주회 성료
청각장애 발레리나 고아라 콜라보

비올리스트 김유영 음악감독
"서로 호흡하며 어우러지는 예술
기적 같은 기쁨의 순간이었다"

우선 코렐리의 '라 폴리아(La Folia)'와 바흐의 '샤콘(Chaconne)'으로 무대의 막이 올랐다. 시각 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의 화려한 연주가 순식간에 관객들을 몰입시켰다. 이어서 파라디 '시실리안느(Sicilienne)', 드보르작 '바가텔 작품번호 47번', 아렌스키 '피아노 3중주 1번 Op.32' 등이 연주됐다. 피날레인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Ode to Joy)'까지 무대는 밝고 경쾌한 에너지로 채워졌고,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공연은 장애 연주자들이 직접 곡을 소개하며 관객과의 벽을 허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성은 드보르작의 '바가텔 작품번호 47번'을 두고 "덜렁이는 열차와도 같은



가온 솔로이스츠의 장애·비장애 연주자들이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가온 솔로이스츠 제공)

드보르작의 음악이 감정기복이 심할 때의 저와 닮았다"고 말해 객석에 웃음을 자아냈다. 첼리스트 이재영은 "어머니가 아침마다 들려주시던 그리그의 '아침의 기분(Morning Mood)'을 함께 듣고 상쾌함을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공연의 백미는 청각장애인 발레리나 고아라와의 콜라보 무대. 볼컴의 '우아한 유령(Graceful Ghost Rag)'에서는 유령처럼 부유하는 듯한 움직임을, 차이콥스키의 '설탕 요정의 춤(Dance of the Sugar-Plum Fairy)'에서는 유려하고 경쾌한 발레를 선보이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청각장애가 있는 고아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음성 파형을 분석하며 안무를 짰다. 그는 "저는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본다"며 "이렇게도 음

악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해 연주회 의미를 환기했다.

공연 직전 기자가 만난 가온의 비올라 연주자 백승희(32) 씨와 클라리넷 연주자 한만재(26) 씨의 얼굴에는 긴장 대신 설렘이 가득했다. 연미복을 차려입은 백 씨를 바라보던 어머니 정향미씨는 "관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 아들은 공연을 앞두고 긴장한 적이 없다"며 "어제도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들떠 있었다"고 말했다.

한 씨의 어머니 김명숙씨 역시 "아이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음악 자체를 즐기는 순수한 마음이 크다"며 웃었다.

두 연주자 모두 발달장애가 있다. 일상적인 소통

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도 능숙한 비올리스트이자 클라리네티스트로 변모한다.

"감정과 생각을 타인에게 말로 전달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음악으로 함께 호흡하고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그 모습은 때론 기적처럼 느껴진다"는 보호자들의 말처럼 이날의 무대는 서로의 다름이 하나의 선율로 어우러지는 '따뜻한 기적'의 현상이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강아영(31)씨는 "공연이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연주자들 모두 너무 멋있고 대단하더라"며 "마치 따뜻하고 유쾌한 한편의 드라마를 본 듯한 기분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 10주년을 맞아 연극 '예외와 관습'을 선보인다. (시나페 제공)

당연하게 여겨온 '관습'에 던지는 질문

공익변호사 단체 '동행' 10주년 연극 '예외와 관습'

25일 광산문화예회관

"답을 찾지 마세요. 다만 질문하세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동행)'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연극 '예외와 관습'을 선보인다. 공연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른다.

이번 연극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공익변호사 단체인 동행이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여성민우회 명랑소녀극단 '시나페'가 공동주최했다.

'예외와 관습'은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동명 희곡을 원작으로, 나장진 연출가가 각색을 맡았다. 사회가 당연하게 여겨온 '관습'의 부조리를 예리하게 파헤치는 내용으로, 박소영의 음악과 백민희의 안무가 더해져 무대는 흡인력 있게 채워진다.

극은 성공을 좇는 상인이 갑갑함과 짐꾼과 함께 사막을 건너면서 시작된다. 하위계급에 대한 지배가 당연하다는 '관습'에 충실한 상인은 짐꾼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갑갑이를 해고한

다. 짐꾼을 학대하며 여행 속도를 높이던 중 길을 잃은 상인은 결국 불만에 휩싸인 끝에, 물을 건네려 다가온 짐꾼을 끝내 죽이고 만다. 이제 상인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받게 되는데..

작품은 우리가 당연히 여겨온 관습이 예외 상황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관습이 악습일지라도 따라야 할까, 아니면 예외를 받아들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까.

특히 지역에서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와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도담, 정지윤 등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만큼,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이날 동행 10주년 행사에는 연극 외에도 아뉴엔조베의 축하공연과 동동 AWARDS, 관객과의 대화 등도 펼쳐진다.

동행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며 "동행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무등산 사계-수묵으로 피어나는 대자연의 숨결'

김용준 화백, 5월18일까지 소암미술관

이맘때 무등산은 초록의 기운으로 무성하다. 사시사철 풍광이 아름답지만 숲이 점차 무성해지는 봄철에는 특유의 생명력을 발한다.

무등산 사계를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금당 김용준 화가가 소암미술관에서 오는 5월 18일까지 '무등산(無等山) 사계(四季)-수묵으로 피어나는 대자연의 숨결'을 주제로 전시를 펼친다.

24절기 중 여섯 번째 절기인 곡우(4월 20일)를 즈음해 열리는 터라, 봄 기운과 농경의 의미, 그리고 남도 산하를 대표하는 무등산의 의미까지도 사유해볼 수 있다.

남농 허진 선생의 제자인 김용준 화가는 20대에 스승으로부터 전통 남종화풍을 사사했다. 이후 40년 외길 화업을 이어오며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열었다.

전시장에서는 사계절 변화를 담은 모두 20여 점의 수묵화를 볼 수 있다. 각각의 작품에서 배어나오

는 무등의 숨결은 파스하면서도 감성적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무등산은 여느 산과 비할 수 없는 심미적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서석대와 입석대 등 주상절리를 배경으로 한 잔설과 푸른 하늘을 담은 풍경, 기암괴석 주위를 노랑계 물들인 만추의 풍경, 여름날 지나간 하오의 시간이 깃든 하경이 발현하는 감성도 푸르다.

특히 모진 세월 풍파를 견뎌내며 비탈에 선 노송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무등의 역사와 위대함을 사유하게 하며, 요즘의 시기에 마주할 수 있는 화사한 꽃들의 향연을 오롯이 옮긴 춘경도 이채롭다.



'무등산 노송'

한편 정동화 학에서는 "예로부터 무등산은 다양한 동식물을 비롯해 사찰, 누정, 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와 생명들의 터전이었다"며 "이번 전시에서 남농 선생의 제자인 김용준 화가가 풀어낸 무등산 대자연의 사계와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변적 물질들' 양숙현 작가와의 대화

22일 G·MAP 미디어 라운지

인간의 중심적 사고에서 한발 비껴난 기술과 물질은 어떻게 작용할까. 이 과정에서 존재론적 가능성은 어떻게 발휘될까.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센터장 이경호, G·MAP)에서 진행중인 양숙현(사진) 작가의 개인전 '사변적 물질들'(6월 15일까지)은 현실과 가상을 비롯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사물의 독립적 실재에 주목하는 '사변적 실재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양숙현 작가와의 대화는 22일 오후 2시, 지맵 미디어 라운지에서 열린다.

양 작가가 강연자로 나서며 전시 개념인 '사변적 물질'과 배경 내용들을 이야기한다. 흥희진 독립 큐레이터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홍 큐레이터는 파리 8대학에서 전시이론 및 실재를 전공했으며 ACC 등 다양한 문화기관에서 경험을 쌓았다.

양 작가는 지금까지 기술 환경에서 발생하는 감각, 데이터와 물질의 상호작용 등을 주제로 작업해



왔다. 알고리즘의 오류 등 비결정적 요소를 통해 새로운 감각적 충위를 탐구하며, 동양 철학과 사이버네틱스적 관점이 결합한 실험적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경호 지맵 센터장은 "이번 양숙현 작가와의 대화는 예술과 기술, 철학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통찰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이라며 "예술을 모티브로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경계가 확장된 사유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